

서울시 초·중·고 교원대상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Suicide Gatekeeper Training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n Seoul

고진선¹⁾, 오유리^{1,*)}, 윤신정¹⁾, 최수진¹⁾, 김성우¹⁾

J.S. Ko MSW, Y.R. Oh MSW, S.J. Yoon MSW, S.J. Choi PRN, S.W. Kim MSW

초록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교원을 위한 자살예방지킴이교육(Gatekeeper Training)’이 교내에서 자살위험 청소년을 조기발견하고 연계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원의 자살예방 인식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 **연구방법** : 2018년 서울시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개발된 ‘교원을 위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통해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한 인식변화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2018년 9월 13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울시 내 초·중·고 5곳의 교원 107명에게 교육 전·후 동일한 설문을 진행한 후 사전사후변화를 분석하고자 SPSS 18.0을 통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 ‘교원을 위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참여하기 전과 참여한 후 ‘자살에 대한 오해’를 대응표본 T검정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 :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개발된 ‘교원을 위한 자살예방 지킴이 교육’이 초·중·고 교원들의 자살예방활동에 중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 **주요용어** : 청소년, 자살예방, 교사, 자살예방지킴이

Abstract

• **Objective**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Suicide Gatekeeper Training for teachers’ awareness of suicide prevention which can play a crucial role in early detection and connection with adolescents at risk for suicide.

• **Methods** : ‘Suicide Gatekeeper Training for teachers’ developed by Seoul Suicide Prevention Center in 2018 was conducted for 107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within the city of Seoul. We conducted the same questionnaire before and after the training to verify whether any misperception and bias on suicide change. Then, a paired sample t-test was performed by using SPSS 18.0 to analyze the pre-post change.

• **Results** : As a result of the paired t-tes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post difference was found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in the Suicide Gatekeeper Training for teachers. The results of ‘Suicide Gatekeeper Training knew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s of the pre-post

• **Conclusion** : As a result of the paired t-tes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post difference was found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in the Suicide Gatekeeper Training for teachers. The results of ‘Suicide Gatekeeper Training knew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s of the pre-post

• **Keyword** : Adolescent, Suicide Prevention, Teacher, Gatekeeper

1) 서울시자살예방센터 (Seoul Suicide Prevention Center)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 E-mail (maum1080@suicide.or.kr)

I. 서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는 OECD국가 중 최상위를 유지하는 점수인 반면에 학업에 대한 흥미나 만족감은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반증하듯이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OECD에서 2008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청소년의 사망원인의 첫 번째 순위에 빠지지 않고 자살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17년 한 해 동안에 10~19세 청소년 254명이 자살로 사망하였으며, 이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로 환산하면 4.7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살사망률인 24.3명에는 크게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0대 청소년만을 살펴봤을 때 전체 사망원인 중 30.9%를 차지하며 사망원인 첫 번째 순위에 올랐다(통계청, 2018). 또한 실제 사망하지 않더라도 최근 12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중1~고3 학생)의 비율은 2.6%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7).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위험요인들을 탐색한 연구에 따르면 치명적인 자살률은 성인기로 갈수록 증가하지만, 자살 시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청소년기로 나타나며,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신체적·인지적·심리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자살문제가 한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Fremouw, Perczel, and Ellis, 1990; 김순규, 2008 재인용)고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방송, SNS 등에서 유명인의 자살 사건 보도와 더불어 인터넷상의 자살 유행정보 확산에 따라 대중매체의 영향에 민감한 청소년의 자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국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청소년의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교육부는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각 학교에 학생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대상으로 생명존중 교육 혹은 자살예방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학생건강정보센터 사이트(schoolhealth.kr)에서는 학생 생명존중 교육을 위한 동영상, 발표자료, e-book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이렇듯 학교 기반의 자살예방 교육 혹은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대상의 자살예방 교육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학생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교원들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 시행 현황과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는 아동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이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하여 조기에 개입함으로써 심각한 자살 행동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Hayen DC, Lauer P, 2000; 권호인 외 5명, 2012 재인용).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신보건 체계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고, 학부모와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자살예방 사업에서 핵심적 주제로 강조되고 있다(권호인 외 5명, 2012). 특히, 청소년의 자살문제를 예방하는데 있어 청소년과 접촉 빈도가 높고 조기발견의 역할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교사들과 학교의 운영을 총괄하는 교감, 교장, 교육청관계자 등을 포함한 교원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위험에 처한 학생에게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중요한 일임은 자명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발맞추어 2018년「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제8조에 학생자살예방 담당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의 지원에 관해 명시하는 등 교사 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이미 2010년 청소년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중

사자들에게 청소년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1년에는 자살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및 의뢰 체계하도록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를 양성하였다. Mann, JJ(2005)의 연구에 의하면 자살률 감소에 효과적이라 검증된 개입방법 중 자살률을 40%감소시킬 만큼 높은 효과적인 것은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교육이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는 몇 년 전 서울시 자살예방지킴이 훈련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이 자살 고위험군 발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이구상 외, 2014). 그러나 현재 활용되고 있는 서울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내용은 성인을 위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양성도 지역사회 내 성인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 서울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주요 대상 중 서울시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가 포함되어 있으나(서울시자살예방센터, 2018), 지금의 교육 콘텐츠로는 청소년의 특성 및 자살문제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다루기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는 청소년의 특성 및 학교 실정에 적합한 내용을 담아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교원을 위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위험 청소년을 조기발견하고 연계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함으로써 교원을 위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자살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짐과 동시에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내외적 스트레스가 많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 하다고 볼 수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8). 이와 같이 인지·정서적 미완성의 시기에 급격한 발달을 이루게 되는 청소년기에는 충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자살충동을 일으킬만한 촉발 사건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자신의 내적영향력이 통제력을 넘어서게 되면 자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이은희&조윤자, 2008)고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자살은 삶의 완전한 포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극단적인 표현방식으로 볼 수 있다(윤미경 등, 2015). 이와 같이 충동성과 함께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청소년은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높아진다. 반면에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표현하는 자살에 대한 의도는 역설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일 수 있으므로 자살위험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2. 청소년 자살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자살생각 이유를 살펴보면 학교성적(40.1%),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21.1%), 가족간의 갈등(18.4%),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7.9%), 경제적인 어려움(1.6%), 기타(11.%)와 같다(통계청, 2017).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정신건강문제, 가족력, 가정문제 등 여러 가지를 살펴 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우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원경, 2014; 전홍진 등, 2012; 이은희 등, 2008). 또한,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확립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과 같은 자기통제적 측면의 요인은 자살생각 뿐 아니라 청소년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김원경, 2014).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은 청소년 자살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하여 자살생각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문제해

결력을 감소시키기도 하므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과 문제 해결방법이 중요시 된다. 자살은 자살생각(suicide idea), 자살의도(suicide intent), 자살행동(suicide behavior)을 포함하는 것이다(Ladame & Jeanneret, 1982; Reynolds, 1988: 재인용 이은희&조윤자, 2008). 이에 청소년들의 자살위험성을 자살시도나 행동에만 국한하여 개입하기 보다는 자살생각 유무에 대한 파악에서부터 자살의 행동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요인을 살펴봄과 동시에 해결을 위한 개입을 실천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3.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Gatekeeper 교육

1) 국내

현재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의 자살예방은 대부분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형태의 일반적 자살예방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지식전달일 뿐 교육 이후 실질적인 의뢰-연계체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교육은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홍강의 등, 2014). 홍강의 등(2014)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란 자살위험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을 쉽게 발견하고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사나 학교상담사, 교직원 등을 말하며 게이트키퍼 프로그램이란 이들을 대상으로 자살위험성이 높은 학생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적절하게 반응하는 기술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연(2007)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은 자살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의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고, 중재방법 역시 교사들의 개인에 의한 전략들로 이루어져 효과적인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관련요인과 즉각적인 중재 전략들에 초점을 둔 교사들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한, 오경옥 등(2017)의 연구에서도 학교 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의 교육과 효과적인중재프로그램개발을 촉구했다. 선행 연구 등을 통해 살펴본 바, 아동·청소년의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의 역할은 교사들에게 먼저 부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진다. 또한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감독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의 운영을 총괄하는 교감, 교장들과 교육의 정책방향을 결정함과 동시에 행정적 지원을 수반하는 교육청, 교육부등 모든 교원들에게 먼저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게이트키퍼 교육 중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국외

국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육 이후 의뢰-연계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일반적인 자살예방교육의 경우 자살에 대한 인식변화에는 영향을 주지만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 되지 않았다. 자살예방을 위한 전략 가운데 효과적이라 검증된 방법인 게이트키퍼 교육의 경우 자살감소율이 33~40%로 확인되는데, 이는 모두 군인집단 등 폐쇄형 집단에서의 교육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집단 내 게이트키퍼 교육의 필요성을 대변해 준다. (J. John Mann, 2005) 미국에서는 SAMHSA(Material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국립 증거 기반 프로그램(NREPP) 및 자살방지자원센터(SPA Respectivity)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QPR(Question Persuade Refer)프로그램이 가장 폭넓게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QPR을 통한 학교직원 게이트키퍼교육의 사전사후검사 결과 자살에 대한 인식과 태도, 신념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교사들이 자살위험에 있는 학생들과 만나는 경험은 연 39%정도로 대부분 그러한 학생들에게 접근하기는 쉽지 만 증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경우 의뢰기회를 놓치기 쉽다고 보고한다(Tanya L. Tompkins et al., 2010). 또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게이트키퍼 교육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은 분명함에도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게이트키퍼 교육이 자살청소년을 대응하는데 있어서 교직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켰다는 다수의 증거가 있다고 보고한다(Phoenix K. H. Mo et al., 2018).

4. 교원을 위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개발

본래 교육 개발을 위한 초기 논의 과정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지킴이(Gatekeeper)를 양성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하지만 Stuart C1, Waalen JK, Haelstromm E(2003)의 연구에 의하면 동등한 관계에서 Peer-Gatekeeper 교육은 자살에 대한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가 개선되었지만 도움 여부에 관한 효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학교 직원의 경우 Gatekeeper 교육에 참여 후 적극적으로 고위험군의 발굴에 따른 연계가 이루어졌다(Donna Susanne Condron MA 외 5명, 2014). 또한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여 실시한 1차 FGI 회의에서도 청소년이 직접 Gatekeeper 교육을 받고 역할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정작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교사, 상담교사 등 교원의 민감성이 낮다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교원을 대상으로 Gatekeeper 교육과 자살 예방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성찰을 기반으로, 본 기관에서는 “교원을 위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사업별 다양한 관점의 반영을 위해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내에서 각 팀별 1인으로 TFT를 구성하였고, 2018년 4월 2일 1차 내부 TFT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 9월 5일 13차 회의까지 콘텐츠 구성 및 수정·보완 과정을 거쳤다. 기존에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서울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개발하며 Gatekeeper의 의미와 핵심 전략에 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커리큘럼과 접근법을 구성하였다. 교원을 위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의 구성은 주요한 이론의 전달과 더불어 훈련의 과정을 포함한 기존의 교육 골자를 따르면서도, 청소년의 특성과 학교를 기반으로 보다 유용하고 적용 가능한 대응 기술을 적절하게 조합하고자 하였다. 대처기술을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서울시의 자살예방 브랜드인 ‘마음아름1080’을 활용하였다. 크게 ‘마음’알기 활동과 ‘이음’하기 활동으로 구분하여 먼저 자살고위험 청소년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발견하였을 때 전문기관에 적절하게 연계하기 위한 과정까지의 기술을 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차 외부 전문가 TFT 회의에서는 교육 대상을 교원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과 더불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명료화와 확일화가 필요하다.’, ‘자살위험성이 있는 학생 발생 시 연계 가능한 기관으로 정신의료기관을 포함해야 한다.’ 이외 교육자료 구성 및 흐름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보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교원을 위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교육시간	개요	내용
10분	교육일정 소개 및 사전설문지 작성	

10분	자살예방지킴이란?	• 자살예방지킴이란?
20분	자살에 대한 이해	• 청소년 자살문제 현황 • 청소년 자살 바로알기 • 자살예방지킴이의마음가짐
60분	마음아름 활동	• 마음알기 - 학생에게 관심갖기 - 학생과 대화하기 • 이음하기 - 학생을 전문기관에 연계하기
10분	나는 자살예방지킴이입니다.	• 자살예방지킴이 활동에 대한 안내 및 동의 • 자살예방지킴이로서 다짐
10분	수료증 수여 및 사후설문지 작성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8년 9월 13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5개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을 위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프로그램을 120분간 실시하였다.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교육 특성 상 연구대상자만 별도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 교육에 참여한 교원 163명 중 교육시간 120분을 모두 수료하고 연구에 동의한 115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설문지가 훼손된 8명을 제외하고 107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교육 프로그램 진행은 ‘교원을 위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개발에 참여한 4명의 실무자에 한해 이루어졌으며, 개별화된 교수법의 차이를 보완하고자 실제 진행에 앞서 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된 매뉴얼 회의를 3차례 진행하였다.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단일집단의 사전-사후를 비교 분석한 것으로, 교육을 시작하기 직전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교육이 종료된 직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설계의 모형은 아래와 같다.

표1. 연구설계 모형

집단	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실험군	O ₁	X	O ₂

3. 분석방법

‘교원을 위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18.0을 통해 실험군의 빈도분석과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4. 측정도구

설문의 구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7문항과 ‘주변인 자살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 1문항으로 구성된 총 8문항의 기본인적정보와 자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검증하기 위해 10문항으로 개발된 ‘자살에 대한 오해’가 사전·사후로 구성되어 있다. ‘자살에 대한 오해’는 5점 척도(1점: 아주 많이 동의함 - 5점: 아주 많이 동의하지 않음)로 분류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옳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총합을 채점하였다. ‘자살에 대한 오해’는 이승연(2007)의 연구에서 cronbach α =0.67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전검사 cronbach α =0.69, 사후검사 cronbach α =0.80로 나타났다.

표2 자살에 대한 오해 척도 문항

N	문 항 내 용
1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과 자살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을 시도하게끔 더 부추길 수 있다.
2	자살은 경고 없이 일어난다.
3	자살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살하지 않는다.
4	자살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서 훨씬 많이 나타난다.
5	자살을 고려하거나 시도하는 사람들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거나, 심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6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죽기를 원한다.
7	우울했던 아동, 청소년의 기분이 향상되었을 때, 자살의 위기는 종결된다.
8	부모들은 보통 자식의 자살행동 또는 자살경향성에 대해 알고 있다.
9	자살을 하겠다고 말하는 청소년들은 보통 주위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끌기 위해 그렇게 말한다.
10	12세 이하의 아동들은 자살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는 인지적으로 신체적으로 미성숙하다.

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 107명의 직종은 모두 교원이며, 그중 ‘남성’ 24명(22.4%), ‘여성’ 83명(77.6%),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대는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50대 이상’이 30명(28%)으로 가장 많고, ‘30대’ 26명(24.3%), ‘20대’ 24명(22.4%), ‘40대’ 23명(21.5%)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도 4명(3.7%)이 있었다. 학력은 모두 대졸 이상이며 최종 학력이 ‘대졸’인 교원이 63명(58.9%), ‘대학원졸’이 44명(41.1%)으로 나타났다. 교원으로서 경력은 10년 미만인 44명(41.1%),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까지가 25명(23.4%), 20년 이상부터 30년 미만 14명(13.1%), 30년 이상의 경력인 21명(19.6%)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무응답이 3명(2.8%)이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중학교’가 44명(41.1%)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는 32명(29.9%), ‘고등학교’는 31명(29%)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 자살예방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있는 교원은 55명(51.4%), 없는 교원은 51명(47.7%)이며, 무응답이 1명(0.9%)로 나타났다. 주변인 중에 자살에 대해 생각하거나, 시도력이 있거나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 여부는 ‘없음’이 67명 (62.6%), ‘있음’이 38(35.3%), 무응답이 2명 (1.9%)로 약3명 중 1명은 지인의 자살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7명)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24	22.4
	여성	83	77.6
연령대	20대	24	22.4
	30대	26	24.3
	40대	23	21.5
	50대	29	27.1
	60대	1	0.9
	무응답	4	3.7
최종학력	대졸	63	58.9
	대학원졸 이상	44	41.1
교원경력	10년 미만	44	41.1
	10년 이상 ~ 20년 미만	25	23.4
	20년 이상 ~ 30년 미만	14	13.1
	30년 이상	21	19.6
	무응답	3	2.8
근무학교	초등학교	32	29.9
	중학교	44	41.1
	고등학교	31	29.0
자살 예방교육 경험	있음	55	51.4
	없음	51	47.7
	무응답	1	0.9
지인자살 경험	있음	38	35.5
	없음	67	62.6
	무응답	2	1.9

표5. 자살에 대한 오해 문항별 사전·사후 비교 (N=107명)

구분		대응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대응 1	사전1 - 사후1	-.77	1.36	.13	-1.03	-.50	-5.81	106	.000***
대응 2	사전2 - 사후2	-.27	1.01	.10	-.47	-.08	-2.76	106	.007**
대응 3	사전3 - 사후4	-.52	1.08	.10	-.73	-.32	-5.03	106	.000***
대응 4	사전4 - 사후4	-.40	.90	.09	-.57	-.23	-4.62	106	.000***
대응 5	사전5 - 사후5	-.94	1.29	.13	-1.19	-.70	-7.54	106	.000***
대응 6	사전6 - 사후6	.00	1.13	.11	-.22	.22	.00	106	1.000
대응 7	사전7 - 사후7	-.13	.91	.09	-.31	.04	-1.48	106	.141
대응 8	사전8 - 사후8	-.17	.85	.08	-.33	.00	-2.04	106	.044*
대응 9	사전9 - 사후9	-.87	1.07	.10	-1.07	-.66	-8.37	106	.000***
대응 10	사전10 - 사후10	-.36	1.07	.10	-.56	-.15	-3.45	106	.001**

*p(0.05, **p(0.01, ***p(0.001

2. 연구대상자의 사전·사후 효과성 검증

1) 자살에 대한 오해 사전·사후 비교

‘교원을 위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자 살에 대한 오해’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도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여, 자살에 대한 오해를 감소시키고 인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의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4. 연구대상자의 자살에 대한 오해 사전·사후 비교 (N=107명)

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유의확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자살에 대한 오해	34.93	5.06	39.49	5.66	-9.361	.000***

*p(0.05, **p(0.01, ***p(0.001

2) 문항별 분석

자살에 대한 오해 문항 중 6번 문항과 7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 서 교육 후 인식도 변화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5번 문항 ‘자 살을 고려하거나 시도하는 사람들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거나 심한 우 울증을 가지고 있다.’에서 가장 많은 인식도 차이를 보였으며, 9번 문항 ‘자살을 하겠다고 말하는 청소년들은 보통 주위 사람들의 주위와 관심을 끌기 위해 그렇게 말한다’와 1번 문항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과 자 살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을 시도하게끔 더 부추 길 수 있다’에서도 높은 인식도 차이를 나타냈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전·사후 효과성 검증

1) 성별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교원의 성별에 따른 교육 실시 전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성 과 여성에게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교원을 위한 자살에 방지킴이 교육’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자살에 대한 오해를 감소시키 는 효과가 있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자살에 대한 올바른 정보 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성별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N=107명)

구분		빈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유의 확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성별	남성	24	33.58	4.50	37.12	3.81	-3.81	.001**
	여성	83	35.32	5.17	40.18	5.93	-8.57	.000***

*p(0.05, **p(0.01, ***p(0.001

2) 연령대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교원의 연령대에 따른 교육 실시 전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 든 연령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40대에서 가장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며, 50대 이상에서는 교육 실시 후 척도 점수와 사전·사후 평균차가 가장 낮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7. 연령대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N=103명)

구분		빈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유의 확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연령대	20대	24	34.00	5.27	39.12	4.44	-4.55	.000***
	30대	26	37.07	5.30	40.53	5.13	-3.70	.001**
	40대	23	34.39	4.10	41.82	5.76	-10.50	.000***
	50대 이상	30	34.03	5.11	37.46	6.44	-3.59	.001**

*p(0.05, **p(0.01, ***p(0.001

3) 최종학력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교원의 최종학력에 따른 교육 실시 전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 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지식 및 학력수준을 갖추게 되므로 학 력구분에 따른 효과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교원을 위한 자 살예방지킴이 교육’은 최종학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서 자살에 대한 오 해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표8. 최종학력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N=107명)

구분		빈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유의 확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최종 학력	대졸	63	34.92	5.09	39.85	5.41	-7.93	.000***
	대학원 졸	44	34.95	5.07	38.97	6.02	-5.14	.000***

*p(0.05, **p(0.01, ***p(0.001

4) 교원경력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교원의 경력에 따른 교육 실시 전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경력 과 상관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교원이 사전·사후 검사 모두 척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30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교육 실시 후 척도 점수와 사전· 사후 평균차가 가장 낮아 다른 경력구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9. 교원경력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N=104명)

구분		빈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유의 확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교원 경력	10년 미만	44	34.97	5.36	39.81	5.00	-6.43	.000***
	10년 이상 ~ 20년 미만	25	36.24	4.78	41.12	4.81	-4.70	.000***
	20년 이상 ~ 30년 미만	14	34.71	4.17	40.07	5.83	-4.40	.001**
	30년 이상	21	34.04	5.25	37.09	7.20	-2.56	.018*

*p(0.05, **p(0.01, ***p(0.001

5) 근무학교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교원의 근무학교에 따른 교육 실시 전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유의한 차이(p<0.001)를 나타냈다. 이는 ‘교원을 위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이 학교 구분과 상관없이 자살의 오해를 감소시키는데 효과를 나타내므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0. 근무학교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N=107명)								
구분		빈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유의 확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근무 학교	초등학교	32	36.12	4.53	41.00	4.31	-5.13	.000***
	중학교	44	34.56	4.92	39.27	5.34	-6.83	.000***
	고등학교	31	34.22	5.69	38.25	6.99	-4.12	.000***

*p<0.05, **p<0.01, ***p<0.001

6) 자살예방교육 경험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교원의 자살예방교육 경험에 따른 교육 실시 전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교육경험이 있음과 없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척도 평균점수를 살펴보았을 때 사전·사후 모두 교육경험이 있는 교원이 교육 경험이 없는 교원보다 자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1. 자살예방교육 경험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N=106명)								
구분		빈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유의 확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교육	있음	55	36.05	5.14	40.36	5.41	-6.67	.000***
경험	없음	51	33.66	4.76	38.52	5.87	-6.46	.000***

*p<0.05, **p<0.01, ***p<0.001

7) 지인자살 경험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교원의 지인자살 경험에 따른 교육 실시 전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지인 중 자살행동을 보인 경험이 있음과 없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의 자살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교원을 위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은 모두에게서 자살에 대한 오해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척도 평균점수 또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지인자살 경험에 따른 사전·사후 비교

(N=105명)								
구분		빈도	사전검사		사후검사		t	유의 확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지인 자살 경험	있음	38	35.76	4.51	40.50	6.08	-5.97	.000***
	없음	67	34.53	5.30	39.07	5.28	-7.12	.000***

*p<0.05, **p<0.01, ***p<0.001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개발된 ‘교원을 위한 자살예방지킴이교육(Gatekeeper Training)’이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2018년 9월 13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5개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 중 ‘교원을 위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프로그램을 120분간 수료 완료한 1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을 위한 자살예방지킴이교육(Gatekeeper Training)’은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감소시키고 동시에 인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의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교원들이 자살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의뢰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은 청소년 자살 고위험군에게 다가가 자살위험징후를 발견해 내는 것에서부터 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발견-의뢰-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자살예방지킴이(Gatekeeper)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일반적 특성과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비교한 결과, 교원 남녀 모두에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연령과 학력에 따른 변화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효과적이라고 확인되었다. 다만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교원의 경력의 경우에도 30년이상의 높은 경력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은 교원들의 경우, 연령과 경력이 많아지기 이전에 가능하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근무지에 따른 비교 결과 전 학교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특정 계층만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원들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고학년과 관련된 교원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등 저학년 교원들에게도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의 중요성 인식시키고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교원들이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넷째, 본 교육은 자살예방교육을 받거나 받지 않은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다만, 자살예방 교육을 사전에 받았던 교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주변인의 자살 유무는 교육의 효과와 연관성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살예방 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원들도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원을 위한 자살예방지킴이교육(Gatekeeper Training)’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현재 교원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생명존중교육, 자살예방교육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자살예방센터의 ‘교원을 위한 자살예방지킴이교육(Gatekeeper Training)’은 체계적이고 근거기반으로 방향성이 제시되었으며, 교원들이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을 위한 안정적인고 지속적인 자살예방지킴이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신규 교원들 또는 기존교원들이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교원을 위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이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의 확대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강사를 양성하는 것을 지양함과 동시에 강사의 경우에도 일정한 자격수준이 허락됨을 기본으로 최소 기준에 부합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보다 강조되어야 될 것이다. 향후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는 기존의 자살예방지킴이

강사와 교원을 위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의 강사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며, 강사관리의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교원대상 자살예방 지킴이 교육의 효과성 검증이 오해와 편견 감소에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행동의 변화와 자살 고위험 청소년의 의뢰 활성화가 청소년 자살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자살예방지킴이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반영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VI.참고문헌

고기숙·이지숙·박창훈(2017).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 교육 콘텐츠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8(6):181-197

권호인 외 5명(2012). “학교기반 자살예방 프로그램:장점과 제한에 대한 교사의 인식”. 《신경정신의학》. 53:8-14.

김순규(2008).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과 보호요인-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66-93

김원경(2014). “한국 초,중,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25(3):199-203.

보건복지부(2017). “청소년건강행태조사”. http://yhs.cdc.go.kr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2014). 《2014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보고서》.

서울시자살예방센터(2018). 《2018년 서울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지원사업 매뉴얼》. 23.

오경옥·강문희·김명숙(2017). “청소년 자살에 대한 교사의 역할수행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디지털융복합연구》. 15(1):321-328

윤미경·최명민·백은아·김혜영·김기덕·이명수(2015). “청소년 생명사랑 인식 및 태도 증진을 위한 청소년 자살예방교육 매뉴얼 개발 및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정신보건》. 6(-):24.

이구상 외 4명(2014). “서울시 자살예방지킴이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 《정신보건》.

이승연(2007). “청소년 자살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의 지식과 오해”. 《한국심리학회지》. 05(13):97-117

이승연(2008). “청소년 자살예방 전략으로서의 토레 도우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7-31.

이은희·조윤자(2008). “청소년 자살의 심리적 과정 및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지지의 보호효과”. 《사회연구》. 9(2008년 2호):105-110.

전홍진·배주미·우종민(2012). “청소년 자살 관련 현황 및 위험요인”. 《대한의사협회지》. 56(2):96-97.

정묘순·서수균(2014). “청소년 자살시도 예측변인: 자살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5(2):145-163

통계청(2018). “2017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tat.go.kr

통계청(2017).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죽고싶다는생각 여부 및 이유”. http://kostat.go.kr

한국청소년상담원(2008).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및 개입방안 개발”. 《청소년상담연구》.-(-):5-6.

황순길·박재연·이혜정·손지아(2016). “학교별 청소년 자살방교육 모형 개발”. 《사회과학연구》. 11(32):305-330

Clay Litteken · Elizabeth Sale(2017) “Long-Term Effectiveness of

the Question, Persuade, Refer (QPR)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 Training Program: Lessons from Missouri” .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54(3):282-292
Donna Susanne Condron MA · Lucas Godoy Garraza MA · Christine M. Walrath PhD · Richard McKeon PhD · David B. Goldston PhD · Nicole S. Heilbron PhD(2014). “Identifying and Referring Youths at Risk for Suicide Following Participation in School Based Gatekeeper Training”.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5(4):461-476

Eleanor Bailey · Matthew J. · Spittal · Jane Pirkis · Madelyn Gould · Jo Robinson (2017). “Universal Suicide Prevention in Young People An Evaluation of the safeTALK Program in Australian High Schools”. 《In: Crisis》38(5):300-308

Mann JJ(2005). “Suicide prevention strategies: a systematic review”. 《JAMA》. 2005 Oct 26;294(16):2064-74.

Phoenix K. H. Mo · Ting Ting Ko · Mei Qi Xin(2018). "programmes in enhancing gatekeepers' cognitions and behaviours for adolescent suicide prevention: a systematic review".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12(29).

Stuart C1 · Waalen JK · Haelstromm E(2003). “Many helping hearts: an evaluation of peer gatekeeper training in suicide risk assessment”. 《Death Stud》. 2003 May;27(4):321-33

Tanya L. Tompkins · Jody Witt · Nadia Abraiibesh (2010). “Does a Gatekeeper Suicide Prevention Program Work in a School Setting? Evaluating Training Outcome and Moderators of Effectivenes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0(5):506-515.